

전북 제조업 반등... 소비·고용 '냉각'

올해 1월 기준 제조업 생산 기타 기계·장비 등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 대형소매점 판매 전년동월비 19.9% 급감 등 소비심리 위축... 취업자는 5000명 ↓

전북지역 실물경제가 2026년 초 들어 생산과 수출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소비와 고용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며 체감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기준 제조업 생산은 기타 기계·장비와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며 반등했다. 다만 계절조정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5.6% 감소해 단기 흐름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수요 부문에서는 부진이 두드러졌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9.9% 급감했고,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도 3.8% 줄었다. 소비심리 위축이 실물 지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건설 관련 지표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건축착공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287.5% 급증했고, 건축허가면적도 13.8% 늘어나며 향후 건설경기 회복 기대를 키우고 있다. 다만 기저효과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추세적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수출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1월 수출액은 5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2%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글로벌 수요 회복과 일부 주력 품목의 수출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 상황은 다소 악화됐다. 1월 취업자 수는 9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60.6%에서 60.3%로 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실업률은 4.7%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하며 상승률이 둔화됐다. 주택시장에서는 1월 기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각각 0.2%, 0.10% 상승하며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북 경제는 생산과 수출이 일부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위축과 고용 감소가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특히 내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 전반의 회복 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내수와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소비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대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외국인 창업가 유치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외국인 창업가 유치와 국내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8일부터 2026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 스타트업과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기업에는 평균 5,000만원(최대 8,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GSC) 연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해당 자금은 제품·서비스 고도화, 사업모델 현지화, 지식재산 확보,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GSC를 통해 사무공간 제공, 투자유치 지원, 대·중견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외국인 창업기업의 국내 정착을 돕는 후속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이 사업은 지난해 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화학·소재 분야 스타트업인 Polymerize는 해당 사업과 K-스타트업 업그랜드 챌린지 참여를 통해 국내 진출 이후 11명의 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원 규모를 기존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하고, 지원금 역시 평균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사업 신청은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글로벌스타트업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중기부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김성주 공단 이사장과 토비아스 프로스 일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병원서류 제출 없이 장애심사'... 국민연금, 전북대병원과 협약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추진... 호남권 의료기관 증 최초

국민연금공단이 병원 방문 없이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며 국민 편의 개선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6일 전북대학교병원과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호남권 의료기관 가운데 처음이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은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자료를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대신, 공단이 환자의 동의를 받아 병원으로부터 직접 전달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병원 방문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

고 심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실제 사용자 사례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뇌병변 장애 심사를 받은 A씨는 추가 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병원 방문을 걱정했지만, 공단이 진료정보를 직접 확보하면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동안 장애심사 과정에서는 정확한 의학적 판단을 위해 보완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청자가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용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공단은 앞서 서울아산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협약을 맺고 진료정보교류를 확대해 왔다.

앞으로는 수도권 대형병원뿐 아니라 지역 거점 병원까지 협력 범위를 넓혀 전국 단위 서비스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진료정보교류는 국민이 직접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 행정 혁신 사례'라며 "국민의 발걸음을 데이터가 대신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도, '혁신성장 R&D+'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장 R&D+ 사업' 1차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혁신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조선·항공,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탄소융복합소재, 바이오, 디지털 산업,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10대 미래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중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유관 연구기관 등은 공동 참여기관으로 협력하게 된다.

지원 유형은 자유공모형, 구매조건부, 투자유치형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자유공모형은 최대 1억 원, 구매조건부와 투자유치형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9일부터 4월 10일 오후 4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R&D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주택시장 '걸은 상승, 속은 양극화'

가격 상승세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 등 이어져

전북지역 주택시장이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도 권역별로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나는 '이중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비수요권 가운데 드물게 가격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과 미분양 누적이 이어지며 불균형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년 말 기준 전북 주택 매매가격은 2020년 1월 대비 6.9% 상승했다. 같은 기간 5대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이 하락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이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는 지역 전체의 균형 잡힌 회복이라기보다 특정 권역에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주권은 공급 부족 속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군산·익산 등 서북권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쌓이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지역 차이를 넘어 금융리스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주택가격 흐름을 시기별로 보면 2020

년 중반부터 2022년 말까지 상승기를 거친 뒤 2023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됐고, 2024년 중반 이후 다시 완만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회복 속도는 월평균 0.4% 수준으로, 과거 상승기와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거래 시장은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다. 매매 거래량은 금리 상승 이후 크게 줄어 과거 대비 약 30% 이상 감소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전세 거래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월세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 공급 부족과 전세사기 여파, 대출 부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주택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전국 대비 낮은 가격 변동성이다. 가격 상승기와 하락기를 거치면서도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는데, 이는 실거주 중심의 수요 구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자가

집유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외지인 투자 비중이 낮아 투기적 수요가 크지 않은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안정성 이면에는 구조적 한계도 존재한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가 충청권 등으로 유출되면서 주택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북 주택시장이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불확실한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 및 산업 인프라 확충과 가구 분하는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낮은 매수심리와 청년 인구 감소는 시장 회복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권역별 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 공급 조달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수요 기반 확충, 즉 일자리와 주거 여건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양극화 구조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상근 기자

스마트농업 이끌 우수기업 찾습니다

농식품부, 26일까지 공모... 총 15개사 내외 선정

스마트농업 분야 혁신을 선도할 기업 발굴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공모를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육성해 민간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사업 우대와 금융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시설원예, 노지, 축산 분야 기업으로 총 15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기술 전파를 위한 인센티브 차 별화된 재배기술을 보유한 농업법인도 참여할 수 있다.

선정 평가는 기술역량, 보급 실적, 경영능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평가를 거쳐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선정 기업에는 금융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되며,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한 금리 감면 보증 한도 확대, 민간 투자 유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 기업에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추천 등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향후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되며, 농업법인의 경우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기자재·서비스 생산·공급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청은 분야별 접수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시설원예와 노지 분야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 분야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접수한다.

평가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진행되며, 1차 서류평가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된다. 이후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배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 논의

농진청, 오늘 현장 중심 협의회

농촌진흥청이 배 개화기를 앞두고 저온 피해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1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전남 나주)에서 배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 및 배 산업 발전 방안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배 재배 농업인 단체와 지도직 공무원 연구자 등이 참석해 저온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인공수분과 꽃가루 채취 등 열매 관리 기술 전파를 공유한다. 아울러 최근 연구 성과와 향후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개화기 저온 피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말 전국적인 극저온으로 '신고 품종' 바깥에서 10~40%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상 예보에 맞춰 미세살수, 온풍방생팬, 온풍



송풍, 연소법 등 다양한 대응 기술을 사전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농가의 경우 피해율이 10%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인공수분 기술도 주요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개화기 기온이 낮거나 저온 피해가 발생한 과수원에서는 꽃가루에 증량제를 혼합해 수분을 실시하며, 꽃가루 발아율에 따라 혼합 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지혜 센터장은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과 인공수분은 배 생산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2026년 베트남 무역시절단을 운영하며 현지 시장 개척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 공략 본격... 도내 중기 수출 확대

전북경진원, 2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등서 무역시절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남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며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진원)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2026년 베트남 무역시절단을 운영하며 현지 시장 개척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시절단에는 건설자재, 생활 소비재, 스마트팜, 미용·뷰티 분야 등 도내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해 베트남 현지 바이어들과 1대 1 수출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들은 제품 질적 경쟁력과 시장 반응을 직접 확인하며 실질적인 판로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경진원은 사전 바이어 매칭을 기반으로 한 현지 비즈니스 상담 지원과 함께 시장 동향 파악, 네트워크 구축 등을 병행하며 도내 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현지 유통사회의 상담을 통해 향후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가능성도 적극 타진하고 있다.

이번 베트남 시절단을 시작으로 올해 총 5차례의 해외 무역시절단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일본·대만, 미국, 중국, 태국·인도네시아 등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한 파견을 통해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